타이완 닭 AI 발병…가금류 수출 중단

출처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국제팀] 타이완의 닭 사육 농장 2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닭 5만 8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가금류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타이완 당국은 중부 장화현과 남부 타이난시 농가의 닭들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타이완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완 당국은 이 농가의 닭들을 살처분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감염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가금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해당 농장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정황이 있었으나 당국이 이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야당, AI발생 은폐시도 음성기록 폭로

일각선 "총통선거 의식해 은폐하려 했다" 해석

출처 : 연합뉴스

대만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기록이 폭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3월 8일 입법원(국회) 사회복리・위생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월 1일 AI 문제를 다룬 동식물 검역분야 전문가 회의 음성기록을 공개했다고 자유시보가 3월 9일 전했다.

2시간 분량의 이 기록에는 각종 전염병의 방역과 검사 등을 총괄하는 기관인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검역국장이 "내가 받은 지침은 현재 상황이 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스가 물러나고 나서 다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이 담겼다.
또 이에 대해 실무자가 고병원성 AI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내용도 수록됐다.

민진당은 음성기록에서 등장한 '보스'는 지난달 개각에서 교체된 천우슝(陳武雄) 전 농업위 주임위원(장관)이라고 주장했다.
민진당은 농업위원회 측에 모든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12월 27일 중부 장화(彰化)현의 한 양계장에서 최초 AI 신고가 접수된 뒤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지난 3일에야 AI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 대한 AI 발생 보고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정가에선 당국의 이 같은 은폐 기도가 1월 중순 치러진 총통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이 AI 문제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동물사회연구회(EAST)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년여 전에도 유사한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농업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화현과 타이난(臺南)시 3곳의 양계장에서 AI 발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만 내 모든 가금류의 국외 수출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Product

아르헨티나서 닭 · 오리 100마리 독극물에 떼죽음

출처 : 매일경제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애완동물과 가축들이 독사료를 먹고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의 지방도시 피로바노에서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사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닭과 오리 등 사육 동물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다르면 인구가 18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동물들이 이처럼 무수히 죽어나가자 당국은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다.
도시의 가축병원이 조사한 결과 이 동물들은 모두 아직 성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 독극물이 동물들에게 내부출혈, 신경조직 파괴 등을 일으켰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20일까지 독 성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동물들에게 뿌려진 독이 최소한 100kg에 달한다" 며 "최소 2명 이상이 철저하게 준비한 후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中유명기업, 병 걸린 오리 판매하다 적발돼

출처 : 매일경제

중국이 염색 만두, 왁스 사과에 이어 이번엔 병 걸린 오리를 판매했다고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Customer

최근 병에 걸린 오리를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중국 가금류 가공공장 화잉농산이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도살 전 병으로 죽은 오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 4명을 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3월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병에 걸려 죽은 오리를 사업가 추이진핑이라는 남성에게 넘겼고, 그는 이를 비밀리에 재가공했다.

Community

화잉농산 측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매우 유감" 이라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또 "해당 직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허난성 황촨현 당국은 "자체 조사에서 이미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을 다시 공식 조사할 것" 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은 멜라민을 첨가한 분유와 왁스를 바른 사과 등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